

경북도, 화상통해 신남방정책 교두보 마련

카밀 서자바주지사 화상회의
12월 우호교류협정서 격상 논의
병상확보 등 K방역 사례 공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 신남방정책의 교두보 마련과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5일 리드완 카밀 서자바주지사 첫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2010년부터 서자바주와의 체육교류를 시작해 태권도, 양궁 등 경북의 체육지도자를 전국 최초로 서자바주로 파견하고, 서자바주에서도 매년 100여명의 선수단을 경북으로 보내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서자바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서자바주가 인도네시아 전국체전 종합 1위(2016년)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좌측) 리드완 카밀 서자바주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

이를 바탕으로 양 지역은 2018년 우호교류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경북도와 서자바주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중 우호교류협정서(MOU)로 격상할 것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화상회의를 마련했다.

화상회의에서 서자바주는 MOU 격상 논의의 뿐만 아니라 경북도의 경북형

K-방역 모범사례에도 관심을 가져, 도가 실시했던 코호트격리, 경중환자 분리, 병상확보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도는 서자바주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마스크 5만매를 기부하기로 했다.

리드완 카밀 서자바주지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양 지역간 교류가 체육교

류를 넘어 경제, 관광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다방면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체육으로 시작된 교류를 향후 경제, 교육, 청소년, 문화, 과학기술까지 확대시켜 양 지역 간 상생의 지평을 열어나가자”라며, “경북도는 서자바주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선도적인 지방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국제 교류의 성공적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서자바주를 시작으로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 16개국 26개의 자매·우호도시와도 화상회의를 확대할 예정으로, 장기적인 코로나19에 대응할 국제 교류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안동시 이용자 중심 버스노선 개편

안동시는 2020년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 안동역사 이전 등 변화하는 도시여건 및 공간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에 나섰다.

시는 34년간 시행해오던 공동배차제를 폐지하고 책임노선제 도입, 권역별 노선번호 부여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국소적인 노선조정으로 인한 운행 비효율, 노선의 과다 중복,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변화하는 도시여건을 반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이 우선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무안군 무안양파 수출 선적식 /무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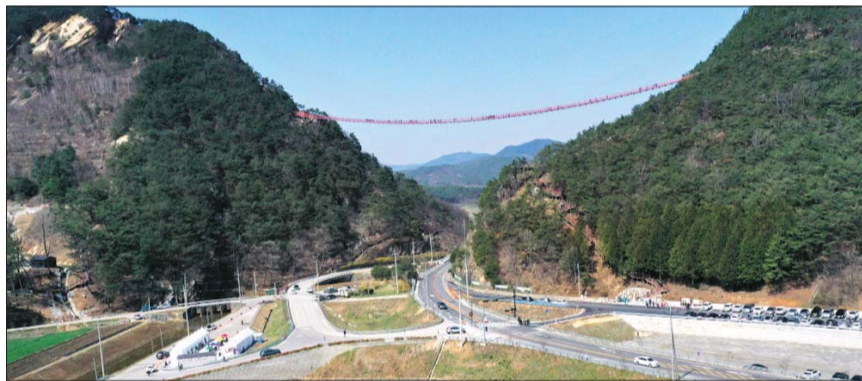
순창군, ‘순창형 뉴딜’ 100대 사업 발굴 추진

韓·전북 뉴딜 기반 지역특화
디지털·그린 분야 등 1491억 규모

순창군이 “한국형 뉴딜정책”에 맞춰 지역 현안 사업과 연계한 “순창형 뉴딜 100대 사업”을 발굴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뉴딜사업은 정부가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라는 의미를 담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난 7월 14일 발표했다.

정부 기조에 걸맞게 순창군도 “한국형 뉴딜”과 “전북형 뉴딜”을 기반으로 지역특화 산업과 미래산업의 연계가 한층 강화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순창형 뉴딜을 완성했다.



전북 순창군 핵심사업 체계산 지역특화 조립사업

이번에 완성된 순창형 뉴딜은 디지털뉴딜 분야 57건 731억원, 그린뉴딜 분야 28건 532억원, 사회안전망 분야 15건 228억원으로, 총 100건 1491억원 규모다.

핵심사업은 ▲순창 체계산 지역특

화 조립사업 ▲발효소스도굴 AR 트리아트판 설치사업 등으로 순창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비한 녹색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디지털 분야 ▲스마트 도로 시스템 구축 사업, 그린뉴딜 분야 ▲도시숲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사회안전망 분야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으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형 뉴딜을 추진한다.

군은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흐름에 전략적 대응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형 뉴딜로 지역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발굴과 예산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

무안군 5개 농산물 1021톤 수출

전남 무안군은 양파와 마늘 등 5개 품목 1021톤의 농산물을 동남아, 미주 등으로 수출하여 농가소득 9억 2500만 원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농산물 소비부진을 만회하고자 농협과 관내 영농조합법인이 양파 792톤, 마늘 120톤, 양배추 63톤, 단호박 36톤, 무안김 10톤을 수출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최대 수출시장은 동남아시아와 대만, 홍콩으로 전체 수출물량의 99%를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일본과 미국에 무안김을 수출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수산물 수출전 문단지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남원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식 /남원시

남원시, 문화도시 행정 협의체 발족

부서 간 협업통해 정부 정책 대응

남원시가 모든 행정역량을 끌어모아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대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남원시가, 부서 간 문화도시의 가치를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지난 5일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 18일에는 12개 2차 예비도시 및 3차 준비도시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공무

원의 이모저모’ 라는 주제로 도시들 간 상생 협력을 모색하는 콜로키움을 개최해 역량을 자랑했다.

이번에는 시 내부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청 회의실에서 지난 5일 개최된 발족식에는 협의체 위원장인 허태영 부시장을 비롯한 11개 부서의 17개 담당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소개하며 부서 간 연계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강성대 기자

고양시, 지자체 일자리대상 장관상 수상

최근 3년간 고용률 지속 상승

고양시는 10월 5일 정부고양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의 공시제(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지역 일자리정책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대표적인 지역일자리 시상식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3년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2019년도에 역대 최고 고용률 65.0% (15세~64세 기준)를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2019년도 일자리 주요 추진성과를 ‘여(성)신(중년)일자리’에 역점을 뒀다. 17년도 대비 5.4%p 증가한



지난 5일 정부고양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의 우수상을 차지한 고양시 관계자들. /고양시

19년도 여성 고용률은 (‘17년 48.7%’ 18년 51.4%, ‘19년 54.1%) 전체 고양시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큰 견인 역할을 했다.

신중년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서 2년 연속 전국 최다 확보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도 2년 연속 경기도 내 최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평택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선정

평택시가 2021년 생활 SOC 연계 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에 ‘평성(청담중) 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사립학교 최초로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평성읍 청담중학교내에 체육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체육센터는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천 800㎡, 지상 2층 규모의 수영장형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1층은 성인 및 유아용 수영장, 2층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구성하여 학생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생활 SOC 연계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부지 내에 학생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를 맺고 공존하도록 하는 학교 시설의 새로운 모델이다. /평택(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